

집값상승·트럼프 우세… 건설株, 국내외 업황 호재 연이어

금리인하 기대… 서울 아파트 가격↑
트럼프, 러-우 전쟁 조기종식 공약
재건사업 참여로 건설수주 수익 전망
불확실성 잔존… 회복속도 더딜 듯

국내 건설주와 건설지수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인한 부진을 딛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확률까지 올라가면서 건설주에 기대감이 높아진 탓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건설주로 꼽히는 삼성E&A의 이날 종가는 2만5100원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 18일 2만1950원보다 약 14.7% 올랐다. 현대건설도 연중 가장 주가가 낮았던 지난 4월 17일 3만1350원보다 3만2300원(23일 종가)으로 올라 약 3.1% 상승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건설사의 2분기



한국부동산원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올랐다. /유투이미지

실적과 달리 주가는 상승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E&A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 동기보다 41.6% 감소한 2010억원으로 예상된다. 매출도 2조5455억원으로 8.6% 줄고, 당기순이익은 1451억원으

로 4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9일 2분기 실적을 내놓은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14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4.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1461억원으로 31.2% 줄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연일 일어나자 건설

주기도 오르는 형국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올랐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기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롯됐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을 두고 “낮은 주가 부담과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을 고려해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업종 26개로 구성된 ‘KRX 건설 지수’도 상반기 부진한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4.95% 오르며 상반기 부진을 만회해냈다.

아울러 건설주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며 ‘수혜주’로 꼽히기도 한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한 상태다. 이는 국내 건설

사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 건설 수주 수익 등을 거둬 건설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설주가 국·내외 건설 업황에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며 상승 중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투심과 별개로 주가 회복속도와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해외사업 등의 다양한 모멘텀 요소에도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원가율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동시에 누르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회사 펀더멘털 개선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가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도 “8월 중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이 오른다고 주택주를 매수하기엔 지방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자산운용 “‘PLUS ETF’로 시장 질적성장 집중”

15년 만에 브랜드명 교체로 차별화
엔비디아·인프라 총합 투자 콘셉트
10월 새롭게 출시할 상품도 예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ETF 간 판을 교체하는 등 리브랜딩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RISE’로 ETF 명칭을 변경한 KB자산운용에 이어 한화자산운용도 ‘PLUS ETF’ 브랜드를 선보였다.

23일 한화자산운용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PLUS ETF 브랜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PLUS는 ETF 시장 발전을 견인하면서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는 우리 한화자산운용의 전략적 의지를 담은 브랜드”라며 “우리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신기술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화자산운용 ‘PLUS ETF 브랜드 출범식’에서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이를 사업화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은 15년 만에 ETF 브랜드명을 기존 ‘ARIRANG’에서 ‘PLUS’로 바꿨다. ‘PLUS’는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일상을 넘어선 가치를 실현해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브랜드 변경 이후 새롭게 출시하는 ▲PLUS고배당프리미엄위클리콜옵션 ▲PLUS일본엔화초단기국채 ▲PLUS글로벌AI인프라 등도 공개했다.

국내 ETF 시장이 15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자 자산운용사들도 ETF 리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투자자산탁운용이 ETF 브랜

드명을 ‘ACE’로 변경하면서 성과를 보인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투운용은 19일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 10조7811억원을 달성하면서 연초(5조9415억원) 이후 81.45% 증가했다.

다만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 부문장은 “ETF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반추해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화자산운용부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브랜드명을 변경했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 ETF 성장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KB자산운용도 8년 만에 ETF 브랜드를 ‘RISE’로 바꾸면서 ETF 사업의 리뉴얼을 알렸다. 같은 날 KB자산운용 역시 ‘RISE ETF’의 첫 상품으로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ETF’를 내놓았다. 두 자산운용사 모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AI 관련 상품을 ETF 리브랜딩과 함께 간판으로 내걸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AI 레볼루션에 올라타기 위한 상품들은 많을수록 좋다”며 “최소한 3~5년까지는 AI가 메가 트렌드로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밸류에이션 불만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에 탑승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의 차별점으로는 엔비디아와 인프라 분야를 총합해 투자하는 콘셉트를 꼽았다.

이날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10월 새롭게 출시할 상품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금 본부장은 “S&P500지수는 현존하는 상품중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품이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갈증도 많은 상황”이라며 “미국 대표지수 투자방식을 재정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신하은 기자 godhe@

에탁원

상반기 M&A 63개사

한국에탁결제원은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63개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1개사(17%), 코스닥시장 52개사(83%)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M&A 사유로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7.6%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에스케이엔터카가 31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케이지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엔비디아 등 기술주 레버리지 ETF 매수세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중심 기술주 조정 단기간 전망

최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기술주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장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16~22일)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 3배 ETF(SOXL)로, 2억4098만달러가 몰렸다. 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상승 시 2배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 ETF도 상위

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학개미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볼 1.5배 ETF(TSLI)를 7141만달러 어치 매수했고, 그레닛세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를 6606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테슬라(7328만달러), 애플(7232만달러), TSMC(2571만달러)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글로벌 IT 대란의 여파 등 반도체 관련 약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9%가량 하락했으며, 엔비디아, 테슬라 등은 8%, 5%가량 떨어졌다. 시장에선 곧 급락한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기업 상반기 주식발행 금액 85.5% 늘어

대형 IPO·대규모 유상증장 영향
회사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

대형 기업공개(IPO)로 올 상반기 주식을 통한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이 전년 동기 대비 85%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행됐다. 반면 CP·단기사채를 통한 조달은 줄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총발행액은 138조32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늘었다. 주식 발행 금액 부문은 전년 동기 2조7354억원 대비 85.5%(2조3400억원) 늘어난 5조75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대형 IPO와 대규모 유상증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IPO 규모는 54건 이뤄

졌으며 1조5662억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다. 특히 코스피 상장된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상반기 IPO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액은 7400억원을 넘긴 바 있다.

또한 유상증자는 23건, 3조50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건, 101%(1조7706억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133조2470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회사채 잔액 규모는 658조1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319건, 33조5195억원이 발행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161억원(3.1%) 증가한 수치다. 신규 발행이 만기도래금액인 29조1280억원을 상회하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순발행 기조를 유지 중이다. /허정윤 기자